

韓國 靑磁 發生에 관한 背景的 考察

崔 健*

目 次

I. 序 言	IV. 硬質陶器와 靑磁의 關係
II. 唐代後期の 社會的 背景과 磁器	1. 硬質陶器에서 靑磁로의 技術적 轉換
1. 社會的 背景	2. 陶器質 大形器皿과 磁器質 小形器皿의 關係
2. 唐代後期の 磁器	V. 靑磁 發生時期와 關聯되어 왔던 諸問題
III. 統一新羅時代 後期の 社會的 背景과 靑磁	VI. 結 語
1. 社會的 背景	
2. 統一新羅時代後期の 靑磁	

I. 序 言

우리나라에서 靑磁發生에 관한 문제는 靑磁鉢에 굽을 짚는 형식 중의 하나인 해무리굽의 출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형식을 唐代後期에 주로 만들어졌던 同形의 靑·白磁鉢의 영향으로 보는 관점에서 연구되고 있다.¹⁾

그러나 中國 磁器의 해무리굽은 다른 형식의 굽과 함께 만들어진 것이어서 당시의 주류는 아니었으며, 더구나 그의 성행기간도 대체로 8·9세기를 통하여 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靑磁에 보이는 해무리굽과 靑磁發生時期를 직접 연관시키는 것에는 적지 않은 무리가 따르게 된다.

그런데 中國의 磁器가 鉢·鉢·접시 등 小形器皿을 중심으로 다량 생산이 시작되는 때는 唐代 後期부터이며²⁾, 이 때부터 해무리굽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과 연관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해무리굽이 출토되는 窯址에서는 鉢·鉢·접시 등 小形器皿이 다량 생산되었고, 그 결과로 거대한 廢棄物의 퇴적층을 남기고 있어서 中國의 경우와 같이 해무

* 檀國大·弘益大講師. 陶磁史

1) 9世紀 前半發生說로는 吉岡完祐, 『高麗靑磁의 發生에 關한 研究』, 1979, 崇田大學校博物館, p. 35, 과 9世紀 末期說은, 鄭良謨, 「高麗靑磁의 研究」, 『考古美術』 (171·172), (1986) p. 2, 9世紀 末에서 10世紀 初說은, 崔淳雨, 「高麗陶磁의 編年」, 『世界陶磁全集』 Vol. 18, 高麗, 1978, 小學館, pp. 131~134, 10世紀 前期說은 三上次男, 「高麗靑磁의 起源とその 歷史的 背景」, 『朝鮮學報』·第99·100輯, pp. 250~251, 10世紀 後期說은 尹龍二, 「高麗陶磁의 變遷」 『潤松文華』·第31號·陶藝 IV·靑磁, 1986, p. 74가 있다.

2) 佐藤雅彦, 『中國陶磁史』, 平凡社, 1979, pp. 105~107.

리굽과 小形器皿의 다량 생산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想定케 해 주고 있다.

이 현상은 唐代 中期 무렵부터 조성되기 시작하는 磁器에 대한 새로운 認識과 需要性向이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하게 조성되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中國에서도 唐代 中期부터 사회적 제반여건의 변화에 따라 고급문화 수용계층이 확산되었고, 靑銅原料의 수급이 불안정하여 靑銅器보다는 원료가 풍족하고 다량 생산이 가능한 磁器가 요구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茶의 보급과 성행도 일상생활기명의 磁器化를 촉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中國의 상황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統一新羅時代 後期에 들어서면서부터 동형의 여건이 조성되고 있으며, 이 무렵에 와서 우리나라에도 靑磁가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관한 문제 이외에도 靑磁發生과 관련하여 硬質陶器에서 어떻게 靑磁로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졌나 하는 문제가 항상 제기되어 왔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미 統一新羅時代에 보편화되어 있었던 高火度 還元 燻造技術 위에 제작된 灰釉陶器와 原始靑磁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당시의 窯業技術이 靑磁를 제작할만한 잠재적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이 글에서 필자의 관심은 무엇보다도 日常生活器皿에서 用途에 의한 “세트(Set)” 문제에 있다. 생활기명은 大甕·壺·瓶 등의 저장용·운반용의 大形器皿과 盃·鉢·접시 등 飲食器用의 小形器皿으로 구분되어지며, 이 두 가지가 마련되어야 생활기명에 한 “세트”가 된다. 이러한 大·小器皿의 材料와 質을 분석한 결과는 靑磁發生時期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 靑磁를 제작하게 되는 사회적 제반여건을 먼저 살펴 보아야 할 것이며, 그 후 施釉陶器와의 관계 및 일상 생활기명의 “세트” 문제를 실증자료로 갖추어 靑磁가 발생할 수 있었던 가장 적합한 시기를 밝혀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규명은 靑磁發生時期에 관한 문제뿐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 靑磁가 갖는 일상생활기명으로 서 工藝상의 위치 문제도 함께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의의가 적지 않다고 본다.

II. 唐代後期の 社會的 背景과 磁器

1. 社會的 背景

中國에서는 唐代後期(8세기 중반~10세기 초)에 들어서면서부터 磁器質器皿이 明器나 祭器 등 大形器皿 위주의 儀器的 性格에서 벗어나 盃·鉢·접시 등의 小形器皿 위주의 日常生活的 性格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³⁾ 이때부터 磁器가 다량 생산되고 “天下에 귀천의 구별없이 사용되었다”⁴⁾고 했을 만큼 일반에까지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磁器는 물론 모든 產物을 다량 생산하기 위해서는 原料 및 제작기술과 함께 이를 필요로

3) 佐藤雅彦, 註 2)의 冊, p. 105.

4) 岡崎敬, 「隋·唐의 文化と陶磁」, 『世界陶磁全集』 Vol. 11, 隋·唐, 小學館, 1976, p. 183.

하는 많은 需要階層의 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中國은 이미 南北朝時代부터 磁器製作技術을 습득하였고 唐時代에 이르면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기술적 여건은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급속히 증가된 수요계층의 확산에 관한 문제는 당시 사회계반현상의 변화로부터 그 요인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 靑磁가 발생하는 統一新羅時代後期の 사회현상과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깊은 관찰이 요망되고 있다.

唐代前期까지 中國 고급문화의 향유층은 전제군주와 소수의 귀족관료계급층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玄宗代(712~759년)에 이르면 과거제도에 의해 신진 관료계급층이 대두되어 새로운 수요층을 형성하는 한편, 이와 함께 변방수비를 목적으로 설치된 節度使들의 세력 확장으로 전제군주의 권력은 점차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⁵⁾

이러한 변화는 결국 절도사 安祿山과 史思明의 亂(755~763년)으로 더욱 가속되면서 唐代後期の 사회는 새로운 변모를 겪기 시작했다. 먼저, 戰亂을 피하여 華南地方에 인구가 증가하면서 중앙의 귀족문화가 전국 각 지방으로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의 산업이 발전하고 경제력이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국내는 물론 해외무역의 성행으로 유산계급층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지배계급층에도 큰 변화가 왔다. 즉 귀족계급이 몰락하면서 신진관료계급층이 대두되었으며, 전국 각 지방에서 50여개소에 이르는 藩鎮勢力이 정치·경제·군사면에서 실질적 담당자로 등장하여 지방분권적 체제로 변천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고급문화의 수용대상이 盛唐代的 소수 지배층에서 다수의 중앙 및 지방의 지배계급과 유산계급층으로 확대된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제 소수 귀족지배계급의 전유물이었던 金玉器나 漆器·靑銅器 및 소량의 磁器로는 확대된 수요계층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어려워졌다. 金玉器는 물론이고 漆器도 다량 생산이 어려운 재료였으며, 靑銅器도 막대한 수요를 공급할 만한 原料가 절대 부족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金屬原料의 採鑛도 어려워졌지만 藩鎮勢力의 존립기반이었던 군사력 증강을 위해서도 金屬의 器皿化보다는 오히려 武器化가 더 절실한 실정이었다.⁶⁾ 이와 더불어 상업발달에 의한 鑄錢事業의 성행도 金屬原料의 器皿化를 어렵게 한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따라서 金屬의 대체품으로 다량 생산의 기술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고, 原料가 풍부한 磁器가 선택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추세로 생각되고 있다.

唐代中期에 磁器의 실용성을 강조하고 그 효용을 장려하는 한편, 민간에서 銅의 鑄造를 금지시키

5) 中國 唐代의 사회적 배경에 관해서는, 에드윈·라이샤워 外著, 全海宗 外譯, 『東洋文化史』 上卷, 乙酉文化社, 1964의 pp. 231~245 「唐後期와 宋」을 참조함.

6) 金屬은 戰爭物資에 중심이 되는 材料이다. 특히 銅은 金·銀과 함께 貴金屬에 속하는 것으로서 飲食器 등의 日常生活器皿은 물론 貨幣의 원료가 되기도 한다.

中國에서 五代末 後周가 高麗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銅을 수입한 것은 軍備확장을 위한 것이며, 『高麗史』·世家 卷一 光宗 9·10年, 高麗末에도 「銅像(佛像)과 銅器는 軍器寺에 소속시켜 갑옷과 무기를 만들고……」라고 하였다. 『국역고려사절요』Ⅳ, 공양왕 3년. 이와같이 銅은 戰亂期에는 武器化하고 안정기에는 器皿化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다. 貨幣와의 관계도 유사했던 것 같다.

고 銅器의 사용을 억제시키려는 「銅禁令」이 있었던 것은⁷⁾, 바로 이와같은 일상생활기명을 靑銅器에서 磁器로 전환시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飲茶之風”의 성행도 磁器의 수요층을 확대시키는 데 큰 요인이 되었다. 茶는 唐代中期부터 유행하기 시작하여 唐代後期에 이르면 일반에게까지 널리 보급되어 課稅의 대상이 될 만큼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되었다.⁸⁾ 이런 현상은 飲茶用器로서 磁器가 성행하였음을 짐작케 하여 준다.⁹⁾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唐代後期부터 磁器가 일상생활기명으로 다량 생산되는 여건은,

첫째, 중앙 귀족문화가 전국 각 지방으로 확산되었고,

둘째, 지배계급층과 유산계급층이 量的으로 증가하여 고급문화의 수요자층이 확산되었고,

셋째, 靑銅器 등의 대체품으로 다량 생산이 가능한 磁器가 선택되어졌고,

넷째, 茶의 성행으로 飲茶用器의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같이 中國의 磁器는 다량 생산되는 유통상품의 하나로서 국내 수요는 물론 외국에까지 폭 넓은 수요층을 형성하였고, 우리나라 및 日本 등에 새로운 磁器文化를 여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2. 唐代後期の 磁器

中國에서는 磁器를 일상생활기명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때는 唐代中期부터이다.

『新唐書』·韋堅傳(743年)에는 洪州窯의 名磁 중에 酒器·茶釜·茶鑪·茶甌¹⁰⁾의 器種이 있어서 飲食器로서 磁器가 제작되고 있었다고 했으며, 『茶經』이 저술되던 시기(760년경)에는 越州窯·鼎州窯·窯州窯·岳州窯·壽州窯·洪州窯·邢州窯에서 磁器가 제작되고 있었다. 당시는 器皿의 磁器化가 진행되는 과정이어서 儀禮的 性格은 감소되는 반면 日常性이 강한 飲食器類가 주종을 이루기 시작하였다.

唐代的 名窯인 邢州窯는 이미 9세기초에 이르면 天下에 貴賤의 구별없이 사용될 정도로 널리 보급되어 그 窯址에는 다량 생산에 의한 많은 량의 匣鉢이 남아 있다.¹¹⁾ 西安 韓林窯의 宗氏墓(745年)에서 出土된 2개의 白磁甌은 해무리굽과 接地面이 좁은 일반형굽이고 側線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다.¹²⁾ 邢州窯의 白磁는 해무리굽의 甌(圖 1)이 主種을 이루고 있지만 末期에는 일반형굽도 공존하고 있었고, 口緣은 모두 玉緣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文樣은 없지만 甌의 口緣을 彫刻하여 花葉形을 만들거나 側面을 눌러 花瓣形으로 만드는 裝飾法만 존재하고 있다.¹³⁾

越州窯에서도 해무리굽(圖 3)과 함께 일반형굽의 甌·鉢·접시 등이 제작되었고, 側線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거나 또는 직선인 두 가지 형식이 있다. 口緣은 邢州窯白磁와 같이 玉緣인 경우는 없고 直口가 대부분이며, 역시 文樣은 없지만 唐代末期에 들어서 간략한 陰刻文(劃花文)이 나타난다. 越

7) 愛宕松男, 「宋代の文化と陶磁」, 『世界陶磁全集』 Vol. 12, 宋, 小學館, 1977, p. 150.

8) 岡崎敬, 註 4)의 論文, p. 182.

9) 愛宕松男, 註 7)의 論文, p. 150.

10) 李知宴·程雯, 『中國陶磁史』, 中國外文出版社十美乃美, 1981, p. 76.

11) 佐藤雅彦, 註 2)의 冊, p. 105.

12) 長谷部樂爾, 「唐の白磁と黑釉陶」·『世界陶磁全集』 Vol. 11, p. 210.

13) 李知宴·程雯, 註 10)의 冊, p. 82.

州窯青磁에 섬세한 陰刻文이 유행하는 것은 五代에 들어서야 시작되고 있다.¹⁴⁾

定窯의 唐代末期에는 해무리굽과 일반형굽(圖 4)의 鉢과 鉢·접시가 주종을 이루고 那州窯와 같이 文樣은 없으나, 花瓣形·花葉形의 裝飾法은 존재하고 있다. 文樣이 나타나는 때는 五代末期에야 비로서 시작되고 있다.¹⁵⁾ 唐代末期의 廣州市 姚潭墓(858년) 出土의 白磁鉢은 해무리굽과 口緣이 玉緣이며 側線이 직선인 것과, 일반형굽과 口緣이 直口이며 側線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2종류의 鉢이 있어서 당시 기명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¹⁶⁾

이상에서 唐代後期磁器의 특징은 해무리굽과 일반형굽이 공존하고 있었으며, 側線도 직선인 것과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2가지가 함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口緣部는 華北地方의 白磁는 玉緣과 直口이지만 華南의 青磁는 直口가 일반적이다. 文樣은 白磁의 경우는 존재하지 않고 五代末期가 되어야 定窯에서 처음 시작되지만, 越州窯에서는 唐代後期까지 無文이었으나 末期에 이르러 간략한 陰刻文이 시작되고 五代에 들어서 성행하게 된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 본 唐代後期 青·白磁의 諸現狀이 우리나라 青磁에 보편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점이 주목된다. 우리나라 青磁의 해무리굽鉢은 口緣이 玉緣이거나 側線이 완만한 곡선을 이룬 예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고 있으며, 오로지 직선적인 側線과 口緣이 直口인 해무리굽鉢만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제작시기에 관한 근거가 될 수도 있지만 中國 磁器의 해무리굽鉢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정에서 編年에 기준이 될만한 자료로는 미흡한 점이 많다. 오히려 中國 磁器文化에 대한 선별적 수용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Ⅲ. 統一新羅時代後期の 社會的 背景과 磁器

1. 社會的 背景

우리나라에서 磁器에 관한 認識과 受容은 이미 三國時代부터 수입된 中國磁器로 시작되었다. 國內出土의 中國磁器의 성격은¹⁷⁾, 統一新羅時代前期까지는 주로 古墳에서 出土하며 수량도 적고 壺·瓶 등 儀禮的 性格의 大形器皿인 반면, 後期부터는 주로 生活遺蹟址에서 出土하며 수량도 많아지고 鉢·鉢 등 日常的 性格의 小形飲食器皿 위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中國에서의 변천과정과 일치하고 있으며, 唐代後期에 다량 생산되어 우리나라로 수출된 磁器 傳播의 실상을 말해주고 있다. 당시 수입된 中國磁器는 統一新羅時代後期 社會의 器皿 材料에 관한 새로운 인식과 자체 생산하고자 하는 의욕을 강하게 불러 일으키는 요인이 되었으리라 짐작된다.

14) 佐藤雅彦, 註 2)의 冊, p. 107.

15) 長谷部樂爾, 註 12)의 論文, p. 211.

16) 註 15).

17) 三上次男, 「朝鮮半島出土の中國唐代陶磁とその史的意義」, 『朝鮮學報』 Vol. 87, pp. 1~38.

이 무렵 일상생활기명의 실정에 관해서는 『三國史記』雜志 2, 器用條(興德王 9年 834)의 기록과¹⁸⁾ 雁鴨池 出土遺物이 단서가 되고 있다. 이 기록의 내용은 당시 사회에 만연된 사치풍조를 억제하려는 「禁令」의 성격을 띠는 것¹⁹⁾이지만 이를 통하여 王室에서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신분에 따라 사용이 허용된 器皿의 材料를 파악할 수 있다(표 1 참조).

〈표 1〉

(○ 사용 가능, × 사용금지)

身分	器皿材料	金·銀 器	金鍍青銅器	銀鍍青銅器	青 銅 器	漆 器	平 文 物	(陶器·木器)
王 室		○	○	○	○	○	○	—
眞 骨		×	×	○	○	○	○	—
六·五 頭 品		×	×	×	○	○	○	—
四頭品·百姓		×	×	×	×	×	×	○
雁鴨池出土品		출토품없음	출토품있음	출토품없음	출토품있음	출토품있음	?	출토품있음

이 「禁令」의 요지는 四頭品과 百姓에까지 靑銅器·漆器·平文物이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금지시키고 그 밖에 재료인 陶器와 木器를 사용하라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여기서 平文物이 무엇을 지칭했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器皿材料의 가치로 보면 원래 四頭品 이하 百姓이 사용하는 陶·木器는 아니었으며, 靑銅器나 漆器와 같이 대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磁器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은 統一新羅時代의 생활유적지인 雁鴨池 出土 器皿의 材質이 靑銅器와 漆器·磁器 및 陶器로 구분됨으로서 가능해진다. 왜냐하면 雁鴨池 出土 器皿 중에 『三國史記』의 기록과 부합되지 않는 磁器를 平文物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靑銅器·漆器·陶器는 이미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던 것이므로 표기할 때 문제가 없었겠지만, 磁器는 統一新羅時代 後期에 와서야 일상생활 용기로 새롭게 인식된 것이고, 더구나 中國에서 전해진 “新文物”이기 때문에 “土産”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文物”이라 표기했을 가능성이 높고 또 “平”은 “陶器와 같이 표면이 거칠지 않고 고른” 또는 “文樣이 없는”의 뜻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平文物”이 磁器를 지칭한 용어로 표기되었다면, 834년 경에는 이미 磁器가—일반 백성의 사용을 금지할 정도로—널리 보급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慶州의 雁鴨池나 皇龍寺址·益山の 彌勒寺址·扶餘의 扶蘇山 등에서 新文物인 磁器가 출토되고 있어서²⁰⁾ 그의 사용분포도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폭 넓은 수요계층이 형성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고급문화의 수요자가 소수의 귀족계층에서 다수의 계급층으로 확대된 것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그의 수요계층이 증가되는 사회적 요인을 살펴 볼 필요가 있었다.

新羅는 三國의 통일로 넓은 국토와 백성을 흡수하는 한편 唐과의 활발한 文物交流를 통하여 산업

18) 『三國史記』, 雜志 2, 器用條, 「新羅器用眞骨 禁金銀及鍍金 六頭五頭品 禁金銀及鍍金銀…… 四頭品至百姓 禁金銀鍍石朱眞平文物……」

19) 『三國史記』, 雜志 2, 「興德王即位九年……民競奢華 只尙異物之珍奇」하여 이러한 풍조를 억제하려는 내용이다.

20) 三上次男, 註 17)의 論文.

의 급속한 진전을 보게 되었다. 중앙의 귀족들은 전제왕권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으로 祿邑을 부활(景德王 16年·757)시키고 이를 중심으로 경제적·군사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전제왕권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惠恭王 3年(768)에 전국의 96角千이 서로 싸웠다는 大恭의 亂이 일어난 후 王權이 실추되고 실질적 권력은 강력한 귀족세력들이 장악하게 되는 한편, 지방의 통치를 위해 파견된 귀족들은 각 지방에서 정치·경제·군사의 실질적인 담당자로 등장하였다.²¹⁾ 이 결과로 지방은 租稅의 의무만 지는 일방적 착취의 대상에서 벗어나 스스로 기반을 갖추고 중앙권력에 도전할 수 있는 실력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王位繼承에 불만을 품은 金憲昌이 증서부지방을 기반으로 반란을 일으키고(822~825) 충청·전라·경상 등 광범위한 지방세력이 이에 호응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각 지방세력이 중앙세력에 대응할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이다. 또한 당시 성행되고 있었던 東南亞 海上貿易을 기반으로 세력을 잡은 대표적 인물인 張保臯에 의해 神武王(840年)이 응립되는 등 新羅의 역사무대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옮겨가는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정치적 혼란기였던 四王의 交替期가 지나고 文聖王代(839~857)에 들어서면 중앙에서는 귀족연합체제가 확립되고 지방은 중앙정권에 간섭받지 않는 지방분권체제로 기울어 가면서 9세기말 後三國이 형성되기 전까지 新羅 사회는 표면상의 안정기에 들어서게 된다.

지방세력이 확장되는 여건 중에는 新羅後期에 들어 진행되는 국토개발사업과 서남 해안에 설치한 軍鎮이²²⁾ 크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중앙세력에 이득이 있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지방세력에게 경제적·군사적 실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뿐이었다.

이어서 지방세력들은 때마침 성행하는 해상무역에 참여하여 새로운 中國文物에 익숙해질 수 있었고²³⁾, 해상무역의 성행은 물자의 교류로써 이루어지는 경제적 의의를 넘어서서 제반문화의 교류까지도 확대되고 있었다. 渡唐留學生과 禪僧·居留民들의 귀국과 활발했던 해상무역으로 인하여 서남해 연안의 지방세력들은 보수적인 慶州地方보다 오히려 선진문화의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 기반 위에 선진문화의 기반까지 확립한 지방세력들은 그 당시 中國에서 일상생활용품으로 보편화되었던 磁器의 실용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며, 수요의 급속한 팽창을 소수의 輸入磁器만으로 충족시킬 수 없었던 것이 國內生産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발전되었으리라 짐작된다. 이는 곧 9세기 전반 이후에 사회 제반여건의 변화는 고급문화 수요층이 소수 귀족계급에서 다수의 지배층으로 전환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生活器皿에서도 수요자가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종래 귀족계급의 器皿材料였던 金·銀·靑銅器와 漆器로는 확대된 수요를 만족시키기 어려워졌다.

21) 李基白, 『韓國史新論』, 一潮閣, 1976, pp.115~118 참조.

22) 당시의 軍鎮은 826년에 溟江鎮에 長城을 축조하고, 828년에 淸海鎮의 설치, 829년에 唐城鎮, 이어서 844년에 宄口鎮을 설치하였던 것으로 이는 장차 지방세력에 군사적 실력을 제공하는 근거가 되었다.

23) 李基白, 註 21)의 冊, p.115.

이러한 실정은 中國의 唐代後期和 유사성을 갖고 있다. 즉, 中國에서 수요층의 확대와 군사력을 기반으로 하는 藩鎮勢力들의 존재가 金屬原料의 器皿化보다 武器化를 더 절실하게 요구되었던 것과 같이 統一新羅 後期の 지방세력들은 그들의 존립기반인 군사력 우위를 위해 금속 원료의 무기화가 우선되었던 것으로 짐작되어진다. 따라서 금속의 代替材料로 磁器가 선택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와 더불어 “飲茶之風”의 성행도 器皿의 磁器化를 촉진시키는 큰 계기가 되었다. 茶를 마시는 풍습은 善德王代(632~647)부터 시작되었으나, 興德王代(826~836)에 와서 가장 성행하였다. 특히 9세기 전반부터 귀족하는 禪宗僧侶들에 의하여 각 지방에 禪宗寺刹이 세워지고 성행됨에 따라 “飲茶之風”이 전국적으로 보편화되어 高麗 初期에 이르던 지방의 軍民에 이르기까지 널리 유행하여 일반 백성의 필수품으로 되고 있었다.²⁴⁾ 따라서 茶器로서 磁器의 수요가 확대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이제까지 살펴 본 磁器와 관련된 사회적 배경은,

첫째, 고급문화 수요층이 증가,

둘째, 唐代後期 中國磁器文化의 자극,

셋째, 靑銅器의 대체품으로 磁器의 수요가 증대,

네째, 茶의 성행으로 飲茶用 磁器의 수요 증가로 요약될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고급문화 수요층의 증가이며, 이는 磁器와 같이 다량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형성의 기반이 되는 전제조건이 된다.

위와 같은 모든 상황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 靑磁發生의 여건이 충족되기 시작한 시기는 9세기 전반으로 추정될 수 있다. 9세기 말부터 10세기 전반은 後三國의 대립과 高麗가 통일과업을 이루어 가는 격동기였으며, 10세기 후반에는 지방세력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중앙집권체제를 확립시키는 전환기였다. 따라서 9세기 말부터 10세기 후반까지는 전란기에서 지방세력 기반의 쇠퇴기로 이어지고 있다. 사실상 이런 실정에서 새롭게 磁器를 제작하고 다량 생산할 만한 충분한 여건조성이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²⁵⁾

2. 統一新羅時代 後期の 靑磁

中國에서 磁器가 小形 飲食器皿을 주종으로 다량 생산되고 해무리굽과 일반형굽의 畵이 공존하였던 시기를 唐代後期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磁器에서 해무리굽의 형식이 발생할 가능성은 上限을 8세기 중엽으로 下限은 10세기 중엽으로 우선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磁器窯址 중에서 해무리굽을 동반하는 窯址와 해무리굽이 없고 일반형굽만 존

24) 茶의 성행에 관해서는 『三國史記』 卷 10, 興德王 3年 12月條에 있고, 이후 高麗初期에는 일반에까지 널리 보급되고 있었다는 기록을 여러 군데에서 찾아진다. 『高麗史』, 世家 卷 3, 成宗 9年 10月條 外.

25) 高麗初期인 10세기 경에는 地方豪族들이 半獨立의 狀態를 유지하다가 光宗의 王權強化政策에 의해 肅清당하게 된다. 豪族의 지지기반을 잃은 서해 중남부지방에 거대한 규모의 靑磁窯가 쇠퇴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 아닌가 한다. 그 예로 五代에 최고급품 靑磁를 제작하였던 범세계적인 越州窯도 宋의 건국과 아울러 吳越王 錢氏가 978년 宋室에 들어간 이후 급속히 퇴조한 것을 들 수 있다.

재하며 陰·刻의 施文技法이 행해진 窯址를 구분하여 각자의 특색을 살펴보기로 하겠다.²⁶⁾

① 해무리굽을 동반하는 窯址群의 特性

가. 窯址의 분포가 서해안 중남부 전역에 적절하게 흩어져 있다.

나. 匣鉢을 사용하고 동일한 器形을 다량 생산한 결과로 대규모의 퇴적층을 이루고 있다.

다. 器種은 壺·瓶·盒 등도 일부 존재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罍·鉢·접시 등 일상생활용의 飲食器皿이다.

라. 해무리굽과 함께 일반형굽의 罍·鉢·접시가 있으며, 窯址에 따라서 높은 굽의 鉢·접시 및 花瓣形 접시가 공존한다.

마. 文樣은 거의 없으나, 드물게 조잡한 문양이 미숙한 솜씨로 陰刻施文된 경우가 있다.²⁷⁾

② 해무리굽이 없는 窯址群의 特性

가. 窯址의 분포가 全南 康津郡 大口面과 全北 扶安郡 保安面の 2개소로 대표적인 窯址가 집중되어 있다.

나. 해무리굽을 동반하는 窯址群들에 비하여 규모가 아주 적어졌으며, 동일지역 내에서 소규모로 산발적으로 제작되고 있으나, 다량 생산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다. 飲食器皿도 많지만 器種이 다양해지고 大形器皿이 증가한다.

라. 文樣은 다양한 素材와 形式에 의해 익숙한 솜씨로 陰刻施文되고 있다.

이로서 해무리굽을 포함하는 ① 類形窯址群은 無文의 飲食器皿을 다량 생산한 곳으로 ② 類形窯址群은 陰刻文이 施文된 다양한 器種을 생산한 곳으로 규정지을 수 있겠다.

앞서 中國 磁器의 성격에서도 간략히 살펴 보았듯이 無文이 중심이었고, 해무리굽이 공존하였던 시기는 越州窯나 邢州窯·定窯에서도 唐代後期였으며, 末期에 이르러 陰刻(劃花)技法이 나타나며 五代에 와서 해무리굽이 소멸하고 陰刻文樣이 크게 성행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① 類形窯址群의 성격은 唐代後期の 것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우리나라의 靑磁는 다량 생산의 여건이 갖추어진 統一新羅後期인 9세기 전반에 한반도 전 지역을 공급대상으로 하여 다량 생산되기 시작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26) 尹龍二, 「高麗靑磁窯址의 研究」, 『考古美術』 Vol. 171·172, pp. 59~70, 崔淳雨, 『朝國靑磁陶窯址』,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2.

27) 해무리굽罍을 제작한 窯址들에서는 대부분 無文 위주이지만 드물게 陰刻文이 미숙한 솜씨로 조잡하게 施文되고 있다. 發掘報告된 高敞窯址와 龍仁窯址 등에서 그 예를 볼 수 있고, 『高敞雅山岫 水沒地區發掘調査報告書』·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龍仁西里 高麗白磁窯』, 湖巖美術館, 研究叢書, 1987, 그 외의 窯址調査에서도 파악될 수 있다.

IV. 硬質陶器와 靑磁의 관계

1. 陶器에서 磁器로의 기술적인 전환

이제까지 統一新羅時代의 대표적 陶器²⁸⁾인 灰靑色硬質陶器에서 靑磁로의 移行은 현저한 기술적인 극복없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즉, 灰靑色硬質의 無釉陶器에서 靑磁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胎土의 精選과 함께 灰釉陶器→灰釉磁器(原始靑磁)→靑磁로 이행되는 기술적인 단계를 하나하나 거친 후에만 비로소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統一新羅時代의 陶器를 세밀히 관찰하면 이 陶器들을 제작한 수준이 靑磁發生의 바로 前段階에까지 도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陶器技術은 이미 三國時代부터 섭씨 1,200°C를 상회하는 高火度 還元焰燻造技術로 발전되었으며, 三國時代 末期에 이르면 自然釉의 段階를 넘어선 人工灰釉陶器가 제작되고 있었다.²⁹⁾ 또한 섭씨 700~800°C의 低火度鉛釉를 사용한 陶器技術도 器皿과 함께 건축재료에도 사용되고 있었던 만큼 釉藥의 제조방법 및 그의 기능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高火度燻造技術의 기반 위에서 보면 까다로운 鉛釉의 제작보다는 樹木의 灰가 주원료로 되는 灰釉의 제작이 훨씬 더 손쉬운 것이었다.

統一新羅時代의 灰釉陶器에 관해서는 이미 1974년 당시 國立慶州博物館 鄭良謨館長에 의해 慶州 부근의 月城郡 川北面 衣山三里 陶窯址出土品에서 灰釉陶器의 존재가 확인되었고, 필자도 同 窯址의 地表에서 灰釉陶器片을 채집한 바 있다.³⁰⁾ 이 灰釉陶器片은 廣口圓底小壺의 일부로서 인공적인 灰釉·胎土의 質·굽받침의 방법 등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壺의 하반부에 속하는 陶片은 굽바닥의 일부분만 제외하고 전면에 施釉되어 있으며, 굽바닥에 釉藥이 부분적으로 흐르거나 묻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면 인공적 施釉가 분명하다. 또 胎土에는 다소 작은 沙粒이 섞여 있으나, 밝은 灰靑色을 띠고 磁器質에 가깝게 燒結되어 있어 靑磁의 胎土에 근접하고 있다. 그리고 燻造할 때 굽받침은 전통적 방법인 「벗짚」을 사용하여 짚이 타 버린 흔적이 역력히 남아 있다. 「짚」은 樹木의 재와 달리 耐火도가 높아서 순수한 짚재는 耐火物로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9세기경의 陶窯址로는 서해 중남부의 대규모 陶窯址인 忠南 保寧郡 眞竹里窯址와 全南 靈岩郡 鳩林里窯址의 灰釉陶器가 주목된다.³¹⁾ 이들 陶窯址出土品은 器形과 技能에 따라 黃赤色軟質陶器도 일부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硬質陶器이며 硬質陶器는 다시 無釉硬質과 灰釉硬質로 나뉘어진 다. 특히 鳩林里窯址의 灰釉陶器는 綠褐色灰釉와 黑褐色釉로 구분되어 있는데 綠褐色灰釉인 경우는

28) 『統一新羅·高麗 질그릇』·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特別展圖錄(16), 1987, pp.117~118과 p.118의 (표 2) 참조.

29) 安承周, 「土器」, 『韓國史論』 15, 한국의 고고학 Ⅲ, 國史編纂委員會, 1987, pp.136~137.

30) 이것은 梨花女子大學博物館의 特別展을 위한 자료조사차 陶窯址調査中 地表에서 채집한 것으로 현재 同博物館에 보관중이다.

31) 『統一新羅·高麗 질그릇』, 참조.

胎土의 색이 밝은 灰青色이며, 다소 거칠기는 하지만 硬度는 매우 높고 磁器質에 가깝게 燒結되어 있어서 釉胎의 색과 胎土의 質로 보면 原始的 靑磁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成形方法은 대부분이 전통적 방법인 輪積法을 사용하였지만 일부의 瓶 등 小形器皿은 磁器式成形方法으로 제작되어 成形技法에 있어서도 앞으로 세심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굽받침 방법도 眞竹里 窯址出土品인 경우 굽은 모래와 흙이 섞인 받침이 대부분이나 鳩林里窯址出土品의 경우는 無釉陶器의 일부와 모든 灰釉陶器에 조개껍질받침을 사용하고 있다.

이상 살펴 본 統一新羅 後期 灰釉陶器의 제작기술과 靑磁의 제작기술을 분류하여 보면 表 2와 같다.

〈表 2〉

燔造溫度		燔造方法	胎土	釉藥	굽 받침	器形	
初期靑磁	高火度 섭씨 1200내외	還元焰	담회청색	담회청색투명유	微粒의 白色 耐火物	小形器皿 小形盃鉢위주 (瓶·壺도 있다)	
灰 釉 陶 器	花山里出土 灰釉陶器	"	"	담회청색	얇은 투명유	짚	小壺類
	鳩林里出土 灰釉陶器	"	"	담회청색	비교적 두꺼운 투명 녹색	조개껍질	大形器皿· 壺·瓶 위주
				흑갈색	반투명 암갈색	드물게(흙받침)	
眞竹里出土 灰釉陶器	"	"	흑갈색	반투명 흑갈색	굽은모래+흙	大形器皿 壺·瓶 위주	

먼저 高火度 還元焰燔造法과 胎土의 제작은 靑磁의 경우와 기술적 차이가 없다. 굽받침의 목적도 유약이 녹아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耐火도가 높은 재료(짚, 조개껍질, 모래 섞인 흙, 내화토)를 사용하면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며, 결국 耐火物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있었다고 볼 수 있다. 成形技法은 大形은 陶器式으로 小形은 磁器式으로 器形의 大小에 따라 전문화되고(오늘날에 제작법도 大·小에 따라 전문화되어 있다)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統一新羅時代 後期에 이르면 無釉陶器→灰釉陶器→灰釉磁器(原始靑磁)에서 靑磁제작으로 이르는 기술적인 기반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한편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灰釉陶器窯址出土品은 모두 大形器皿 위주이다. 그러면 다음 節에서 이 大形器皿과 한 “세트”가 되는 小形器皿에 대한 규명이 있어야겠다.

2. 陶器質 大形器皿과 磁器質 小形器皿의 관계

器皿은 그의 用途에 따라 大甕·壺·瓶 등 貯藏用·運搬用 大形器皿과 盃·鉢·접시 등 飲食器用 小形器皿으로 구분되어지며, 이 두 종류가 모여서 日常生活器皿의 한 “세트”를 이루게 된다. 그리고 大形器皿은 제작과 용도의 특성 및 재료적 가치에 의해 硬質陶器로서도 충분히 실용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반면, 飲食器類는 大形器皿보다는 質의으로 우수하고 技能的 材質인 磁器나 靑銅器가 더 실용적인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統一新羅時代 前期부터 高麗時代 前期까지 生活遺跡址에서 出土된 陶器의 器種에 따른 質

의 변화를 살펴보면, 大甕과 壺·瓶 등 大形器皿은 시대의 경과에 관계없이 오로지 硬質陶器로 일관하고 있지만, 罍·鉢·접시 등 小形器皿인 경우에는 質은 물론 제작기술에서도 점차적으로 퇴락해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³²⁾

慶州市 月城 垓子 부근의 建物址에서는 統一新羅時代 前期의 제작으로 추정되고 있는 印花文高杯類와 함께 無文의 圓底罍·平底전접시·굽접시 등이 함께 출토되었다. 이 중에서 高杯類의 기명이 다른 종류보다는 다소 정교하게 만들어졌지만 대체로 이 출토품들은 다른 大形器皿과 비교하여 質에 있어서는 물론 기술에서도 동일한 수준이다. 그러나 統一新羅時代 後期樣式으로 추정되는 雁鴨址·皇龍寺址·彌勒寺址·木川土城址 出土의 罍·鉢·접시 등은 다른 大形器皿에 비해 質적으로 뒤떨어질 뿐 아니라 만들새도 비교적 거칠어지고 있다. 더우기 高麗時代로 들어서면 定林寺址出土品에서 볼 수 있듯이 大形器皿의 質은 앞시대와 별 차이가 없는데, 罍·鉢 등 小形器皿은 만들새도 아주 거칠며 粗質이고 거의 軟質陶器에 가까운 수준이다.³³⁾

이러한 현상은 統一新羅 後期の 陶窯址 조사에서도 보여지고 있다. 統一新羅時代 前期의 印花文 硬質陶器를 생산한 慶州地域 月城郡 花山面 東山里·花谷里窯址 등에서는 大形器皿과 罍·鉢 등 小形器皿은 모두 硬質陶器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統一新羅 後期の 窯址로 생각되는 서남부 해안지방의 眞竹里 窯址와 鳩林里 窯址에서는 堆積의 거의 대부분이 大形器皿으로서 硬質陶器나 灰釉陶器이지만, 罍·鉢의 小形器皿은 수량이 아주 적을 뿐 아니라 만들새도 거칠고 조잡한 軟質陶器여서 飲食器로 사용되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렇게 大形器皿의 質은 일정하고 小形器皿만 시대가 내려갈수록 쇠퇴하는 현상은 大形器皿의 경우는 硬質陶器로도 충분히 기능을 갖추고 실용적이므로 더 이상 質的 상승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던 반면, 小形器皿의 경우는 磁器 및 靑銅器라는 대체 재료의 등장에 의해 상대적으로 陶器質小形器皿의 실용적 기능이 저하되었을 뿐 아니라, 소비계층의 하락으로 더 이상 기술투자의 의욕과 경제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眞竹里 窯址와 鳩林里 窯址와 같이 대규모 窯址群에서 제작된 大形器皿과 함께 한 “세트”를 이루고 있었던 小形飲食器類의 材質에 대한 규명이 있어야 하겠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興德王 9年(834)의 「禁令」은 四頭品 계급에서 百姓에 이르기까지 靑銅器·漆器·平文物(磁器)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치풍조와 外國의 異物을 숭상하는 풍조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당시 정치적·사회적 실정으로 보면 이 「禁令」의 대상은 전국적이라기 보다 오히려 慶州를 중심으로 하는 百姓들에 한정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雁鴨池 등 慶州地方의 生活遺跡址에서 出土된 小形飲食器用 磁器는 唐代 後期の 靑磁·白磁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靑磁가 포함되어 靑磁의 發生時期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주목되고 있다.

한편, 初期靑磁의 특징을 보이는 대규모 窯址의 출토품은—壺·瓶類도 소량 제작되었지만— 거의 대부분이 罍·鉢·접시인 飲食器 專用의 小形器皿이다. 그리고 窯址의 분포도 앞서 陶器窯址

32) 崔健, 「統一新羅·高麗時代의 陶器에 관하여」, 『統一新羅·高麗 질그릇』, pp. 113~115.

33) 文化財管理局, 『皇龍寺址』, 1984, 『彌勒寺址』, 1982, 忠南大學校博物館, 『木川土城』, 1984, 忠南大學校博物館, 『定林寺址』, 1981.

와 靑磁窯址들이 모두 面海岸 中南部地方에 위치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8세기 후반부터 慶州의 중앙문화에 疎遠했던 地方文化가 독자적인 陶磁文化를 형성하였던 결과로 추측할 수 있다. 군사력을 강화해야만 존립할 수 있었던 서부지방 세력들에게는 金屬原料의 器皿化보다는 武器化가 더 절실했던 요구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鳩林里·眞竹里 窯址의 大形器皿의 硬質陶器는 小形의 靑銅器와 한 “세트”를 이루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같은 지역에 위치하고 다량 생산하였던 初期 靑磁의 罍·鉢·접시 등과 함께 한 “세트”를 이루었다고 믿어진다.

따라서 「大中 12年(858)」의 絕對編年을 갖는 眞竹里 窯址³⁴⁾와 같은 시기에 靑磁는 이미 다량 생산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다.

V. 靑磁發生時期와 관련되어 왔던 諸問題

靑磁에 관한 연구가 진전됨에 따라 그의 발생시기에 관하여 많은 관심이 쏠려져 왔고, 연구자에 따라서는 9세기 전기 또는 10세기 후기경에 발생되었다는 자기 다른 편년이 주장되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견해의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靑磁發生期의 특징을 갖춘 絕對編年資料가 없었기 때문이며, 古墳에서 副葬品으로 발견되는 경우에도 古墳形式에 의한 고고학적 편년절정에 따르기보다 불분명한 陶磁의 편년에 의존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出土品에 대한 相對編年 조차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章에서는 기왕에 靑磁의 편년과 관련되어 왔던 문제들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통하여 재검토를 해 보기로 하겠다.

1. 越州窯靑磁式 陶器의 존재 여부

靑磁의 9세기 발생설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論據 중의 하나는 統一新羅 後期의 陶器에 唐代 後期의 특징인 해무리굽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³⁵⁾ 日本의 平安時代에는 多彩釉陶器나 猿投窯의 灰釉陶器에 이미 越州窯式이 模倣되고 있었고, 그 이후 五代 越州窯靑磁의 器形과 장식기법에 의한 陶器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점에 비하여³⁶⁾, 統一新羅時代 後期의 陶器에서 中國磁器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을 우리나라에서 磁器의 존재가 부정되는 근거로 주장되어 왔다.³⁷⁾ 그러나 이 문제는 統一新羅時代 陶器가 갖는 강한 전통의식과 그의 실질적 담당자인 사회계급과의 관계 및 陶器와 磁器가 용도에 따라 이미 質적으로 전문화되어 있었던 점들이 함께 고려되어야만 할 것이다.

慶州의 雁鴨池 出土遺物에서 보듯이 統一新羅時代 陶器의 造形은 三國時代부터 이어 온 강한 전통과 함께 靑銅器를 倣造한 生活器皿으로 양분되고 있다. 그리고 陶器의 수요계층도 興德王 9年の

34) 崔健, 註 32)의 論文, p. 114.

35) 尹龍二, 註 26)의 論文, p. 68, 吉岡完祐, 註 1)의 論文, pp. 13~14.

36) 吉岡完祐, 註 1)의 論文, pp. 10~11, 樽崎彰一, 「灰釉陶器の生成と展開」, 『陶磁大系』 Vol. 5, 三彩·綠釉·灰釉, 平凡社, 1973, pp. 107~114.

37) 尹龍二, 註 1)의 論文.

「禁令」에서 밝히고 있듯이 일반 백성들에 한정되어 있었다. 당시에 고급문화의 수요자들은 韓・中 交流의 성행에 따라 새로운 中國文物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日本の 경우와 같이——고급문화에 대한 갈증을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믿어진다.

즉, 저급한 문화계층에 새로운 고급문화가 즉시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고급문화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특히 統一新羅時代 後期에 이르르면 小形器皿에 있어서 陶器의 위치는 이미 실용적 가치가 점점 상실되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磁器가 다량 생산되고 있었던 점에 유의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실정에서 굳이 陶器를 새로운 中國磁器形式으로 만들 필요를 느끼지 않았었던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2. 「淳化四年」銘靑磁壺(圖 5)의 문제

梨花女大博物館所藏에 이 靑磁壺는 굽안바닥에 「淳化四年(993년)癸巳太廟第一室亭器匠崔吉會造」라는 陰刻銘文이 있어 우리나라의 磁器質器皿으로는 993년의 절대편년을 갖는 최초의 자료로 이미 널리 알려져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의 제작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고찰해 보겠다.

이 「淳化四年」銘壺의 形式이 五代 長沙瓦渣坪窯의 黃釉雙耳壺와 유사한 점을 들어, 우리나라 靑磁의 발생시기를 10세기 전반으로 설정하는 근거 중의 하나로 제기되어 왔다.³⁸⁾ 그러나 銘文에 의한 제작배경과 器形을 함께 고려해 보면 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다.

銘文에 의하면 이 壺는 太廟의 第一室에서 사용했던 儀式用器로 볼 수 있다. 大廟는 成宗 8年(989년)에 창건되었고, 成宗 11年 12월에 완성되었다. 그런데 이에 앞서 成宗 2년에 北宋으로부터 大廟堂圖 등 祭器圖를 들여 온 것으로 미루어 보면 당시 大廟는 北宋의 제도를 본떠 이룩된 것인 듯하다.³⁹⁾

따라서 「淳化四年」銘壺는 北宋의 祭器를 모방했던 것으로 보여지며, 당시 北宋의 실정은 越州窯가 이미 퇴조하였고, 耀州窯・定窯는 아직 세련되지 않았던 때이므로 中國 磁器의 형식보다는 靑銅祭器의 형식을 모방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특히 이 壺의 형식이 우리나라의 陶器나 靑磁에서 전혀 찾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壺의 口緣部의 형태나 굽의 형태가 金屬器에서 轉化된 듯한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靑銅祭器를 倣造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이 「淳化四年」銘壺와 中國 五代의 長沙瓦渣坪窯 黃釉磁器를 연관시키고 그를 근거로 하여 우리나라 靑磁의 발생시기를 10세기 전반 이후로 설정하는 의견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된다.

38) 三上次男, 註 1)의 論文, pp. 246~250.

39) 이에 관해서는 金庠基, 『高麗時代史』, 서울대학교출판부, 1985, p. 54에 지적되어 있다. 大廟는 成宗 8년에 社稷은 成宗 10년에 창건되었는데, 이에 앞서 成宗 2年(983년)에 宋으로부터 博士 任老成이 귀국할 때 大廟堂圖一鋪 및 記一卷, 社稷堂圖一鋪 및 記一卷, 文宣王廟圖一鋪 및 祭器圖一卷과 72賢贊記一卷을 들여왔다. 大廟 및 社稷은 이들을 기초로 하였을 것이 분명하며, 祭器도 그에 따랐을 것이다. 大廟는 成宗 11년(992년) 12월에 완성되었으며, 『高麗史』世家 卷 3. 成宗 2年 3月條와 8年・10年・11年 12月條 참조. 그 중 太祖의 廟인 太廟祭器 「淳化四年」銘壺는 993년에 제작되었다.

3. 「元宗大師惠眞塔碑」의 碑文에 기록된 “金釳瓷鉢”에 관한 문제

서울 景福宮內에 옮겨져 있는 京畿道 驪州 高達院의 元宗大師 惠眞塔碑의 碑文중에는 “奉爲國師……仍獻踏納袈裟磨衲襖并座具銀瓶香爐金釳瓷鉢水精念珠”라고 있다. 이는 高麗 4代王 光宗(949~975년)이 元宗大師를 國師로 封하고(950~958년간) 王이 친히 불제자가 되어 大師에게 여러가지 法具와 寶器를 바친 品목을 기록한 것이다. 이중에서 “金釳瓷鉢”은 五代 越州窯靑磁의 金釳靑磁로 추정되어 왔으며, 그에 따라 당시에 國產 靑磁가 아직 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기되어 왔다.⁴⁰⁾

金釳瓷鉢은 鉢의 口緣部에 얇은 金屬의 테두리를 씌운 것으로 中國에서도 11세기 이후의 定窯白磁에 성행하였던 것이지만 五代 越州窯의 최고급 靑磁에 이미 존재하였던 것이다. 五代에 가장 우수한 磁器를 생산하였던 越州窯의 吳越國이 宋의 친하통일과 더불어 宋室에 들어갈 때(978년) 靑磁 5만여개와 金覆輪(金釳)靑磁 150개를 헌상품으로 [하고 있다.⁴¹⁾ 이를 보면 金釳瓷鉢이란 五代에 가장 우수한 靑磁 중에서도 뛰어난 質에 품인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高麗는 五代 諸國들과 순차로 통교하였으며, 특히 後周와의 교섭은 매우 친밀하여 光宗 7년에는 後周人 雙翼를 奉職케 하고 歸化 中國人을 우대하는 등 中國문화 수용에 적극적이었다. 또한 光宗 11년에는 吳越王이 寶物 50여종을 보내와 天台의 教卷을 구해간 예도 있어서⁴²⁾ 吳越國의 特產品인 越州窯靑磁의 國內 流入도 순조로웠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國王인 光宗이 國師에게 당시 韓·中 양국을 통하여 최고급품 靑磁인 金釳瓷鉢을 하사했던 것은 당연한 일로 여겨지며 이것이 國產 靑磁의 존재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믿어진다.

4. 10세기 發生說에 관한 문제

우리나라에서 靑磁의 제작이 10세기에 五代 越州窯 陶匠이 직접 來韓하여 시작되었다는 의견은⁴³⁾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初期 靑磁窯址 出土品의 성격이 해무리굽盃를 포함하여 각종 형식의 盃·鉢·접시를 주로 제작하였고 또 無文이기 때문에 五代 越州窯의 일반적 형식과는 크게 다르다.

五代 越州窯 靑磁는 盃에서 해무리굽이 퇴조하고 굽의 接地面이 좁고 밑으로 벌어지는 형태를 하며, 文樣도 唐代 末期의 간략한 陰刻文에서 발전하여 五代에 이르면 가는 陰刻文과 함께 劃花文이 성행하게 된다. 또 당시에 越州窯의 강한 영향을 받고 제작되었던 五代 龍泉窯에서도 越州窯式의 劃花文이 나타나고 있다.⁴⁴⁾

그렇다면 우리나라 初期靑磁의 성격이 10세기경 五代 越州窯式이어야 하는데, 실지 初期靑磁에는

40) 尹龍二, 註 1)의 論文, p. 75.

41) 小山富士夫 外, 「唐·五代의靑磁」, 『世界陶磁全集』 Vol. 11, 隋·唐, p. 265.

42) 金庠基, 註 39)의 冊, pp. 62.

43) 三上次男, 註 1)의 論文, pp. 250~251, 尹龍二, 註 1)의 論文, pp. 74~75.

44) 小山富士夫 外, 註 41)의 論文, p. 258.

8~9세기경 唐代 後期 磁器의 특성인 無文 위주에 해무리굽盞을 포함한 器皿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5. 靑磁의 대표적 器形인 梅瓶의 祖形問題

梅瓶은 靑磁의 器種중에서 大形器皿의 중심이 될 뿐만 아니라 高麗時代 陶磁의 조형미를 대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 梅瓶의 祖形을 中國 宋代 初期의 景德鎮窯 靑白磁梅瓶(圖 6)에서 전래되었다고 보는 의견은⁴⁵⁾, 梅瓶의 변천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靑磁의 夙年을 내려 보게 하는 보조자료로 이용될 우려가 있으며, 그 결과는 古代로부터 형성되어 온 우리나라 陶磁文化의 뿌리깊은 전통과 조형의식을 스스로 변질시킬 염려가 있는 것이다.

梅瓶의 形式은 廣口形口緣部와 짧은 頸部에서 수평에 이룰만큼 완만한 경사의 肩部를 이루며 最大腹徑은 肩部 바로 밑에 있으며 몸통은 완만한 곡선으로 底部까지 좁아드는 형태로서, 높이는 30cm 내외가 된다. 이와같은 비례와 크기의 器形은 雁鴨池 出土品과 皇龍寺址 및 國立慶州博物館의 月城郡 鳧池里 出土品과 天府洞古墳 出土品에서 그의 祖形을 찾을 수 있다(圖 7~8). 이들은 모두 몸통의 4면을 두들겨 四角으로 만든 것이지만 四角 이전의 형태는 靑磁梅瓶과 크게 다를바 없다. 또한 9세기경의 陶器窯址인 鳩林里窯址와 眞竹里窯址에서 主宗을 이루고 있는 四角瓶들(圖 9~10)은 四角의 面이 앞서의 慶州地方 出土品보다 완만해진 것으로 크기·비례·구조에서 靑磁梅瓶(圖 11)과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梅瓶의 祖形이 中國 北宋初期 景德鎮窯 靑白磁梅瓶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오랜 陶磁文化의 전통속에서 스스로 형성되어 온 독자적인 器形임을 증명해 두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몇 가지 문제들은 항상 初期靑磁編年과 관련지으며 그의 發生時期를 10세기 이후로 규정하는 근거가 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을 새롭게 이해해 본 결과는 9세기 발생설의 가능성을 더욱 짚게 해 주고 있다.

VI. 結 語

이제까지 필자가 처음에 의도하였던 靑磁發生과 관련된 제반여건을 규명해 보았다. 특히 日常生活와 연관하여 飲食器皿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던 것은 앞서 여러 번 지적하였듯이 發生期靑磁의 工藝的 特性이 무엇보다도 다량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飲食器皿이었기 때문이다.

靑磁의 發生은 보수적 성향이 강했던 慶州를 중심으로 하는 동해안 지방보다는 문화적으로 개방되어 있고 사회적 신분계급도 폭넓게 확대될 수 있었던 서해 중남부 지방에서 9세기 전기에 제작되기 시작하였다. 靑磁는 원료의 수급이 어려웠던 靑銅器의 대체품으로 시작하였지만 곧 그 실용성이 쉽게 인식되었고, 다량 생산에 따르 경제성과 함께 때마침 성행했던 飲茶之風의 유행에 한층 더 힘입어 産業化될 수 있었다고 본다.

45) 金英媛, 「高麗靑磁와 中國磁器와의 比較研究」, 『考古美術』 Vol. 171 · 172, pp. 81~82.

당시 靑磁의 器種은 唐代 後期와 유사한 無文의 鉢·鉢·접시와, 國產 靑銅器形 및 陶器에서 轉化된 형식인 전접시·눈은굽의 鉢·꽃접시 및 廣口瓶·壺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다양한 器種의 존재는 發生期의 靑磁가 中國 磁器式으로 일관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陶器質窯業의 전통 위에 당시 사회의 美意識이 표출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統一新羅 後期 약 1세기 간의 안정이 깨어지는 末期가 되면 전 국토는 40여년간의 戰亂을 맞게 되어 靑磁는 다량 생산의 여건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質的 퇴조도 예상되고 있다. 더우기 이후 10세기 중기에 이르면 당시 中國의 최고급 靑磁였던 五代 越州窯의 영향이 전파되고 있었지만 그것은 일부 器形과 文樣素材 및 施文技法에만 있었을 뿐이며, 製作技術과 전통적인 器形 등을 변화시키기에는 이미 우리나라 靑磁의 조형적 전통이 확립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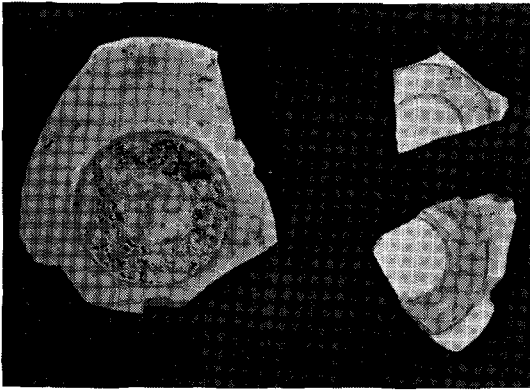


圖 1. 白磁盤版, 唐(618~907) 河南省 邢州窯
(출처: 『近年發見の窯址出土中國陶磁展』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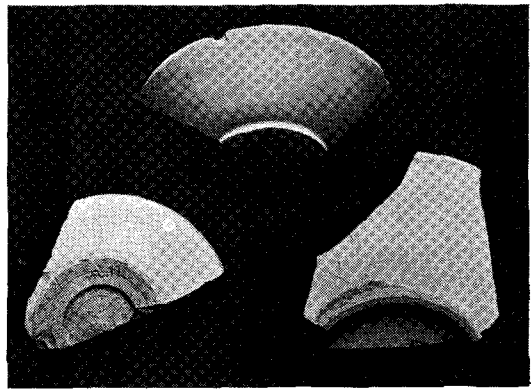


圖 2. 白磁盤片, 唐(618~909) 河南省 鞏縣窯,
長 14cm(上中)(출처: 圖 1과 같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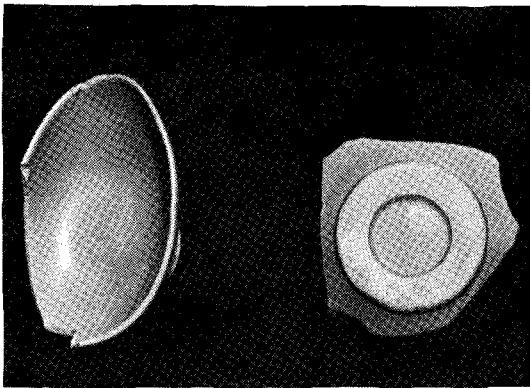


圖 3. 靑磁盤片, 唐(618~907) 浙江省 越州窯,
長 6.5cm(左)(출처: 圖 1과 같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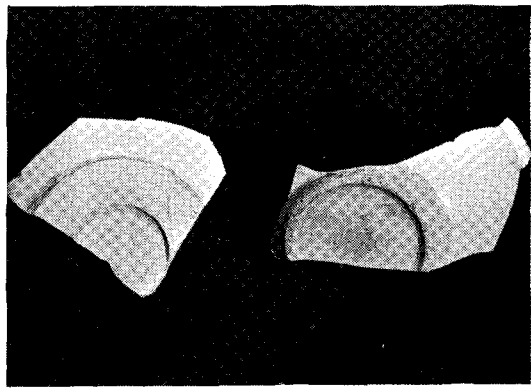


圖 4. 白磁盤片, 唐(618~907) 河北省, 定州窯
長 8.7cm(左)(출처: 圖 1과 같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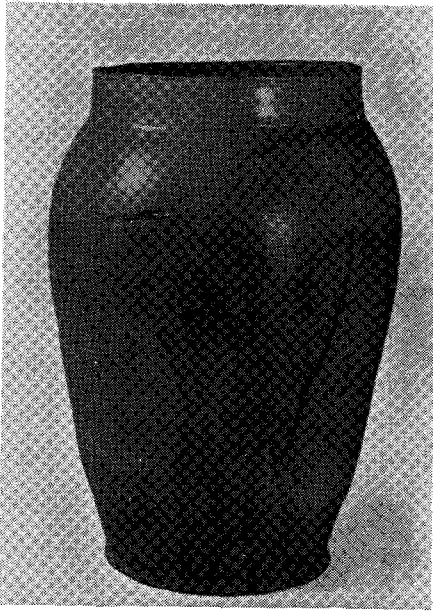


圖 5. 「淳化四年」銘壺. 993년
梨花女大博物館, 高 3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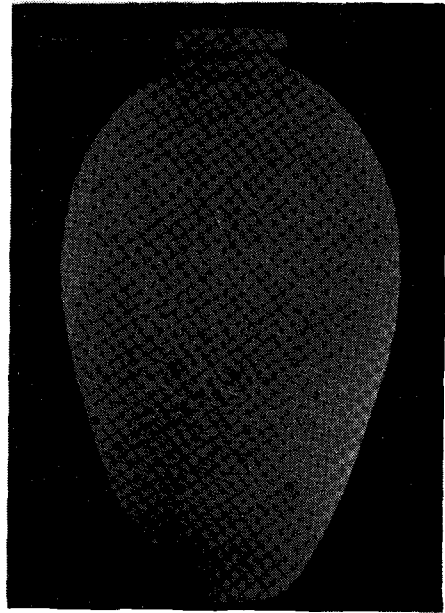


圖 6. 青白磁梅瓶. 11세기초 景德鎮窯, 高 37.0cm
(출처: 『世界陶磁全集』 Vol. 12. 宋, p. 174의 삽도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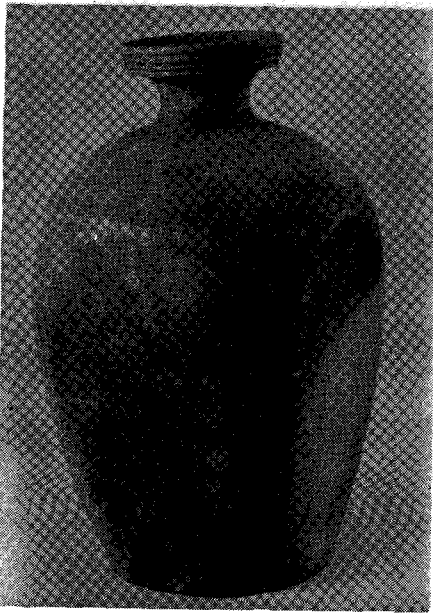


圖 7. 陶器角瓶, 統一新羅後期. 雁鳴池 出土, 高 27.6cm
(출처: 『雁鳴池』, 國立中央博物館, 1980, p. 53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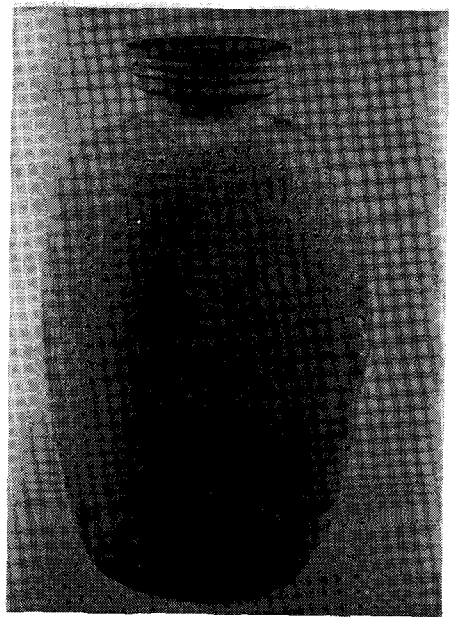


圖 8. 陶器角瓶. 統一新羅後期, 月城郡 鳧池里
出土, 高 30.4cm 國立慶州博物館



圖 9. 陶器角瓶. 統一新羅 後期, 梨花女大博物館
高 26.4cm

(출처: 『統一新羅 · 高麗질그릇』, p. 63, 圖 64에서)



圖 10. 陶器角瓶. 統一新羅 後期, 梨花女大博物館
高 24.2cm

(출처: 圖 9의 책, p. 70. 圖 74에서)



圖 11. 青磁鐵繪梅瓶. 高麗前期, 梨花女大博物館, 高 26.7cm